

# 文대통령 “비서실 개편 ‘친문’ 인사 아냐”

“언론인 등용, 공공성 살릴 수 있어...권언유착은 없다”

“윤도한·여현호, 평소 관심있게 지켜봐...개인 친분無”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근 비서실 개편과 관련 친문(親文)강화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는 약간 안타깝다며 정무적 기능을 강화한 인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8일 청와대 비서실 인사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친분이 아닌 사람이

아냐”고 했다. 이어 “너 친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물러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웃음을 지어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3선 의원 견에서 8일 청와대 비서실 인사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친분이 아닌 사람이

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혀줬다”고 전했다. 이어 “정무적 기능을 강화했다 그렇게 봐주시라”며 “정무적 기능 속에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대화도 보다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은 산자위(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위원회)에 오래 있었고 산업정책도 밝고 산업계 인사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인사”라며 “그런 장점도 발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언론인 출신 인사를 청와대로 등용한 것과 관련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신인 국정홍보비서관에 여현호 전 한겨레 선임기자,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로 바로 오는 것이 관행이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권력에 대해 약합하는 분들이 아니라 언론 영역에서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 역시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로 와서, 청와대의 공공성을 잘 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로서도 청와대 내부에서 길들여진 사람들 간의 한쪽소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 시민의 관점에서 비판 언론의 관점을 끊임없이 제공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언유착 강화를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현직 언론인을 데려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비판한 바 있었다”며 “그러나 그런 권언유착 관계가 지금 정부는 전혀 없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인사에서 후결을 지킬 수 있겠다”며 “대통령님은 청와대에 가장 유능한 사람을 모시고 싶고 청와대 정신이 늘 간직하면서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 더 많은 인사라고 한다면 양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 직후 다음 대목을 빠르게 읽었다는 취지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추가 설명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윤도한 수석과 여현호 비서관 두 언론인 출신들은 평소 보도와 기사를 관심있게 지켜봐왔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전혀 친분이 없고 일대일로 마주 앉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어 전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청문관에서 지난 5·18 북한특수부대 개입 주장 관련 피해 탈북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북한 농업과학원 출신의 탈북자 이만복 대북홍선단장, 강계수홍수 수용자 출신의 탈북자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북한군 정교 출신의 탈북자 김경아 씨, 요덕정치범수용소 출신의 탈북자 정광일 노제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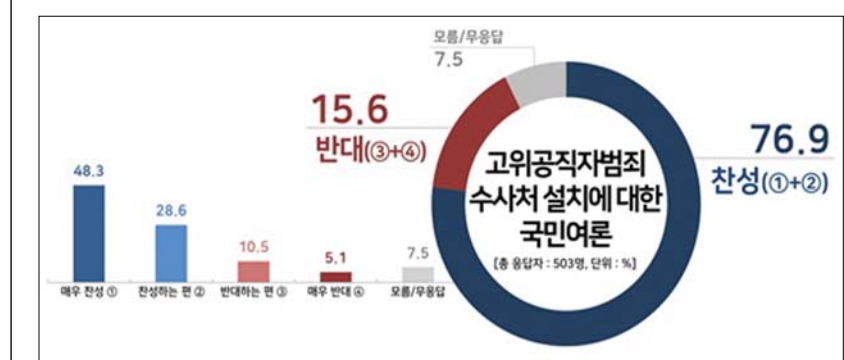
## 하태경 vs 김진태, 지만원 놓고 입씨름

정권에서 극우 논객 지만원씨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두 ‘종북저격수’가 상반된 견해를 내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0일 당 원내정책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지만원씨는 풀뽕 정도가 아니고 정상이 아닌 사기꾼”이라며 “한 국당 김진태 의원은 탈북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입씨름이라고 옹호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지만원씨 없이는 북한군 개입 여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특별법(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북한군 개입 여부가 들어간 게 바로 지만원씨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북한군 개입여부를 밝히자고 해서 법에까지 (북한군 개입여

하태경 “지만원씨는 사기꾼...김진태 의원도 탈북자들에게 사과하라”  
김진태 “지씨 없이 북한군 개입 논의 의미없어...당 중진들도 공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찬성 76.9% vs 반대 15.6%



국민 10명 중 7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9일 tbs 의뢰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48.3%·찬성하는 편 28.6%) 응답이 76.9%로 나타났다. 반대(매우 반대 10.5%·반대하는 편 5.1%) 응답 15.6%보다 약 5배 높은 수치다. 모름·무응답은 7.5%였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2016년과 2017년 조사보다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7월 말 실시한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이 69.1%(반대 16.4%)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

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찬성이 68.7%(반대 21.5%)로 집계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대다수였다. 특히 30대에서는 찬성이 89.3%로 반대(7%)를 큰 차이로 압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은 각각 찬성이 91.7%, 89.7%를 차지했다. 자유한국당(찬 62.8%·반 28.5%)과 바른미래당(찬 60.4%·반 28.9%)도 찬성이 60% 이상을 넘겼다. 보수층은 71.9%, 대구·경북은 73.3%, 60대 이상은 71%로 보수 성향이 짙은 지역 및 세대에서도 공수처 신설을 찬성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777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3명이 응답을 완료, 6.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2016·2017년 조사 때보다 약 8%p 증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찬성 60% 넘어  
보수 성향 짙은 지역·세대도 찬성 여론

하 의원은 “김 의원은 지만원씨가 소위 5·18광주 북한군 잠입 문제에 최고전문가라고 알고 있는 모양이다”라며 “지씨는 광주에 잠입한 북한 특수부대(광수), 이 광수 중에 탈북자 54명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전부 다 날조”라고 주장했다. “광수는 지씨가 자의적으로 지칭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부대의 줄임말’이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을 제1광수, 제2광수, 제3광수 등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어 “이분들 중에는 1980년 당시에 초등학생 나이였던 분들이 있고 10살이 채 안 됐던 분도 있다. 그 분들이 특수부대로 광주에 잠입했다고 주장하는 사기꾼이 지만원씨”라며 “이런 사람을 5·18 전문가라고 추켜세워서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꼭 넣으려고 하는 건지, 김 의원 정말 큰 실수하셨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김진태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의혹을 폭로한 지만원씨에 대해 “정평이 나 있다”며 진상규명 위원으로 적

부를 넣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씩 저런 사람은 하지 마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김 의원은 “국방부에 있는 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지만원씨를 추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중진회의에서도 이종명·이주영 의원 등 상당수가 추천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당 원내지도부가 지씨에 대한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놓고 오랜 딜레마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에서는 만약 북한군이 개입한 것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괜히 불평이 튀지 않겠나 이걸 걱정하는 것 같다”며 “진상을 규명하지는 것이지, 우리가 (북한군 개입을) 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제기가 돼있는 상태에서 지씨 같은 분이 들어가서 (조사) 했는데도 만약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 우리 당이 이렇게 (추천)해서 의혹이 해소됐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당당할 수도 있는데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Gwangsan-gu